

광주 사람들



신호재(서양화가)

천인보(510/1000)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서양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Rumination’, 한문으로는 ‘반추’ 또는 기억, 되돌림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느껴왔던 자연을 한국적 여백을 강조하면서도 저만의 독특한 기법과 색채로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해 공부했을 때는 인물화에 집중했죠. 인물화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과감히 펼쳐버리고 시작한 것이 추상작품입니다. 인물화와 추상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돌연 저만의 큰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전시도 추상화로 했죠. 그 후 수많은 패턴과 양식을 시도했습니다. 나무도 태워보고 물감을 뿌려도 보고 실험작도 발표했는데, 지금 제가 천착하고 있는 그림들은 어릴 적 보아온 고향의 ‘순수한 추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은 패턴과 양식을 시도했습니다. 나무도 태워보고 물감을 뿌려도 보고 실험작도 발표했는데, 지금 제가 천착하고 있는 그림들은 어릴 적 보아온 고향의 ‘순수한 추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 푸르디 푸른 산, 넘칠 듯 넘쳤던 영산강의 추억, 나주의 평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응축해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본 관객들이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으면 싶었죠. 오는 4월 김넷과 갤러리 광주 본관에서 ‘Rumination’을 주제로 약 40일간의 전시를 계획중입니다. 최근 대작 위주로 30여점을 선정했고 광주비엔날레와 5월을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이전에 봤던 작품보다 더욱 간결하고 자유분방한 선의 세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김양지 기자 yangji.kim@jnilbo.com

“지역작가 발굴·현대미술 콘텐츠 유치 노력”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초대관장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

‘인간, 일곱 개의 질문’展 등 흥행 국제 미술관 도약하는 기반 다져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이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제10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제10회 수상자로 이지호 관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이경성 선생 타계 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상이다. 2013년 미술사학자 조은정을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아홉 번에 걸쳐 한국 미술이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가들에게 수여됐다.

2023년 제10회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술대학 서양화를 전공하고, 프랑스 파리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미술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이응노미술관장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의 초대 관장인 이지호 관장은 지난 2년 동안 지역 출신 작가들을 발굴하는 전시를 넘어 지방미술관이라는 한계를 딛고 국제적 미술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지역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을 유치해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거장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지역민을 향한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심사위원회는 “지역 미술관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역 예술문화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특히 해외 유명작가 전시를 지방에 유치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과 세계 미술관과의 성공적인 교류를 보여줬다”고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지호 관장은 “크게 한 일도 없는데 수상하게 돼 감사할 뿐이다. 전남에서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한 이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현대미술 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인천시립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자녀 지원 광주남구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승수)는 22일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용일), (주)대교 솔루니 광주지점(지점장 조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말까지 독서논술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남구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공



쌍촌단지 꽃잔디 식재 행사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광주쌍촌단지(센터장 조천중)는 23일 서구보건소(소장 이원구), 쌍촌종합사회복지(복지관장 김천수) 등 입주민들과 함께 단지내 도로 주변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봄꽃잔디 행사를 가졌다.

광주쌍촌단지 제공



광주 시엘병원, 메디컬 코리아 대통령상

최법체(오른쪽) 광주 시엘병원 원장이 2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 - 제13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에서 열린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메디컬코리아 2023-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은 한국 선진 의료기술 전파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주는 정부 포상이다. 시엘병원은 글로벌 의료 사회공헌, 해외의료진 연수사업 및 장학사업, 의료 관광사업 등 한국의 산부인과 선진 난임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노병하 기자



장성군 공직자-군민들, 탄소중립 실천

장성군민과 공직자들이 탄소 중립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사진)

23일 장성 북하면에 따르면 지난 20일 약초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공직자 등과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장 시가지 도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삼계파출소, 삼계농협, 장성우리신협 직원 등이 동참했다.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은 장성호 수변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엔 황룡강, 가을 백양사, 겨울 죽령산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백운지구대,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 광주남부경찰백운지구대(대장 임동섭)는 지난 21일 공중화장실 4개소 및 여성안심귀갓길 4개소에 설치된 비상벨을 일제 점검하는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쳤다.

광주 남부경찰 제공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정, 무의탁 독거노인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 무료지원 (062) 369-4009

부고

▽김수현(전 조선대 입학부처장·매직청소년사회교육원 감사)씨 별세=발인 24일(금) 광주 북구 용전동 그린장례문화원 1층 VIP실, 장지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062)250-4455

알림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

날씨와 생활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today, nationwide, and regional areas.